일하는 노동자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노/동/이/슈/페/이/퍼

2022-01호

안녕하세요,
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파아란 하늘 아래 푸른 새싹과 정겨운 개나리의 속삭임을 만끽하시면서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나날들 보내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고양시민의 노동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였고, 2021년 10월부터는 (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코로나 19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지금 이순간도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본 센터에서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자 심리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일하는 고양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 02 | 2022년 노동상담통계(1분기)
| 13 | 성공적인 노동사건을 위해서
| 14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 15 | 센터 활동보고
- 배달종사자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휴다방'

발 행 일 2022년 4월
발 행 처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사무국
발 행 인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장 손용선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 (화정동, 세은빌딩)
홈페이지 www.gynodong.org
이 메 일 gynodong@daum.net
대표전화 031-968-7656
상담전화 031-968-7657
팩 스 031-966-4700

고양시노동권익센터
Goyang City Labor Rights Center

목록

이슈페이퍼 내지……1
이슈페이퍼 마지막 장……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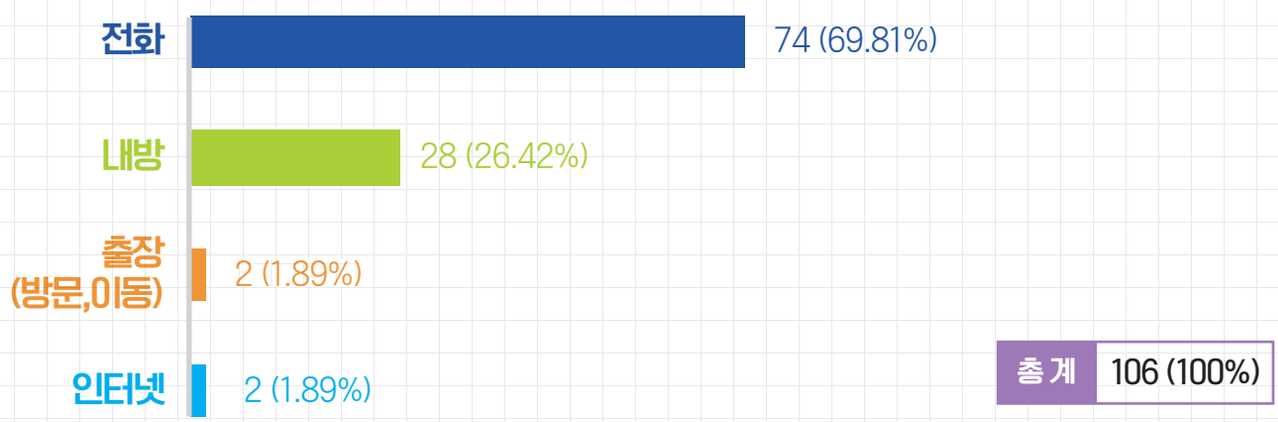
2022년 노동상담통계 (1분기)

❶ 상담통계기간

2022. 01. 01. ~ 2022. 03. 31. 까지(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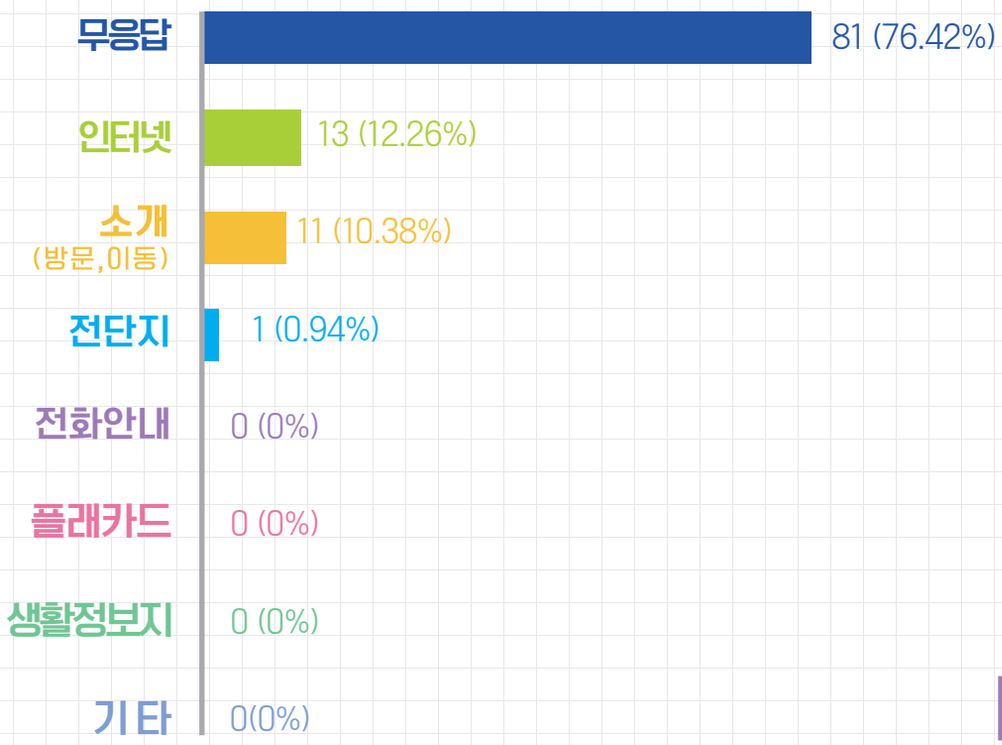
❷ 상담형태

‘상담 형태’는 전화상담 74건(69.81%), 내방상담 28건(26.42%),
출장 2건(1.89%), 인터넷 2건(1.89%)으로 총 106건(100%)입니다.



③ 방문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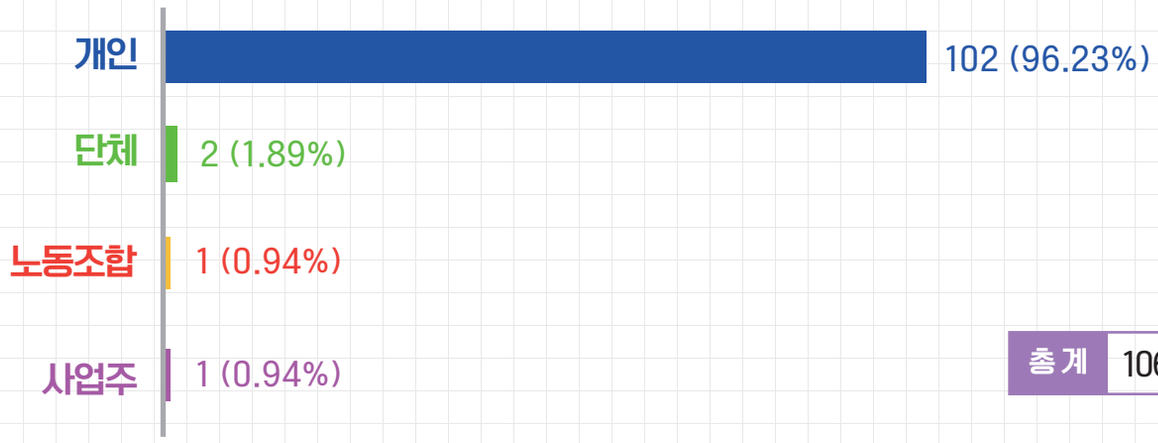
'상담자의 방문동기'는 인터넷 13건(12.26%), 소개 11건(10.38%),
전단지 1건(0.94%), 무응답 81건(76.42%)입니다



총 계	106 (100%)

④ 상담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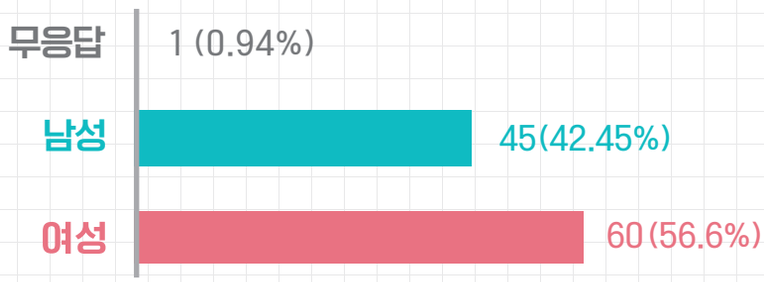
'상담자 구분'은 개인이 102건(96.23%), 단체가 2건(1.89%),
노동조합이 1건(0.94%), 사업주가 1건(0.94%)입니다.



총 계	106 (100%)

5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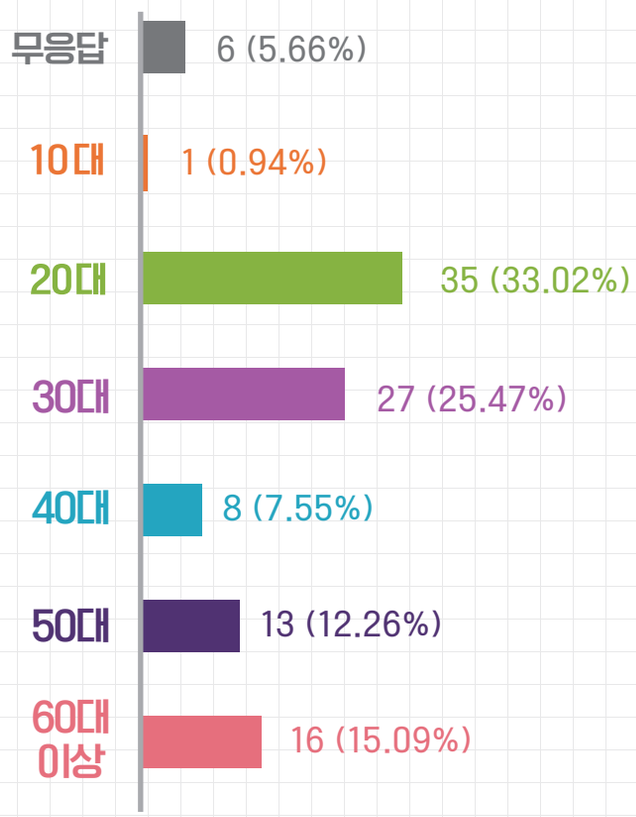
'상담자의 성별'은 남성 45건(42.45%), 여성 60건(56.6%), 무응답 1건(0.94%)입니다.
무응답은 노동조합이 상담한 것을 의미합니다.



총 계	106 (100%)

6 연령대

'연령대'는 10대가 1건(0.94%), 20대가 35건(33.02%), 30대가 27건(25.47%), 40대가 8건(7.55%), 50대가 13건(12.26%), 60대 이상이 16건(15.09%), 무응답이 6건(5.66%)입니다.



총 계	1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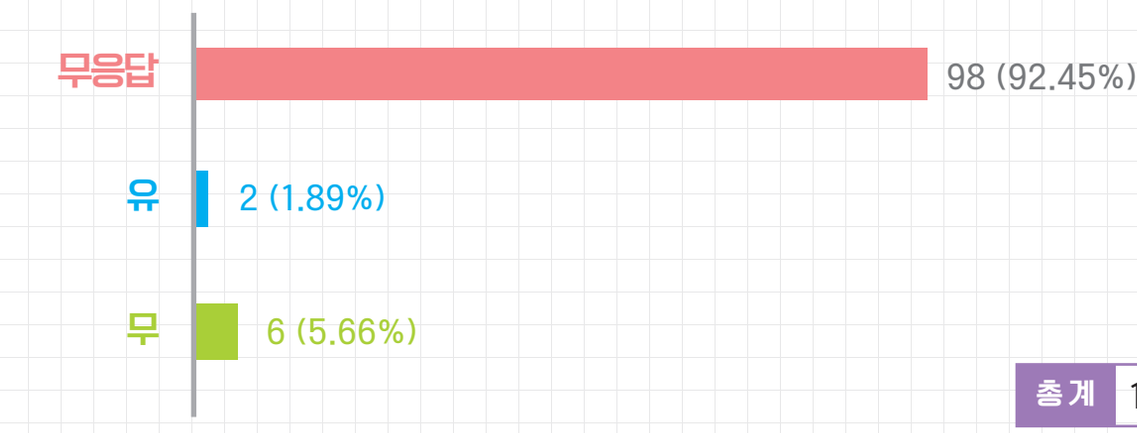
7 국적

'상담자의 국적'은 모두 내국인(106건, 100%)입니다.

총계	106 (100%)

8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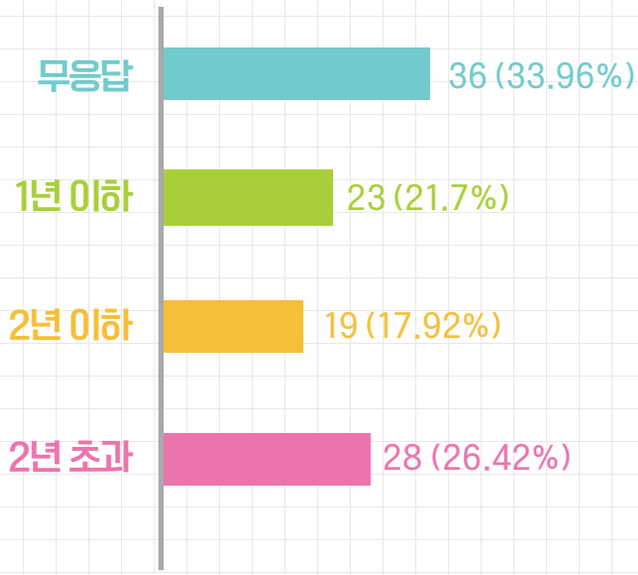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6건(5.66%),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2건(1.89%)입니다. 무응답은 98건(92.4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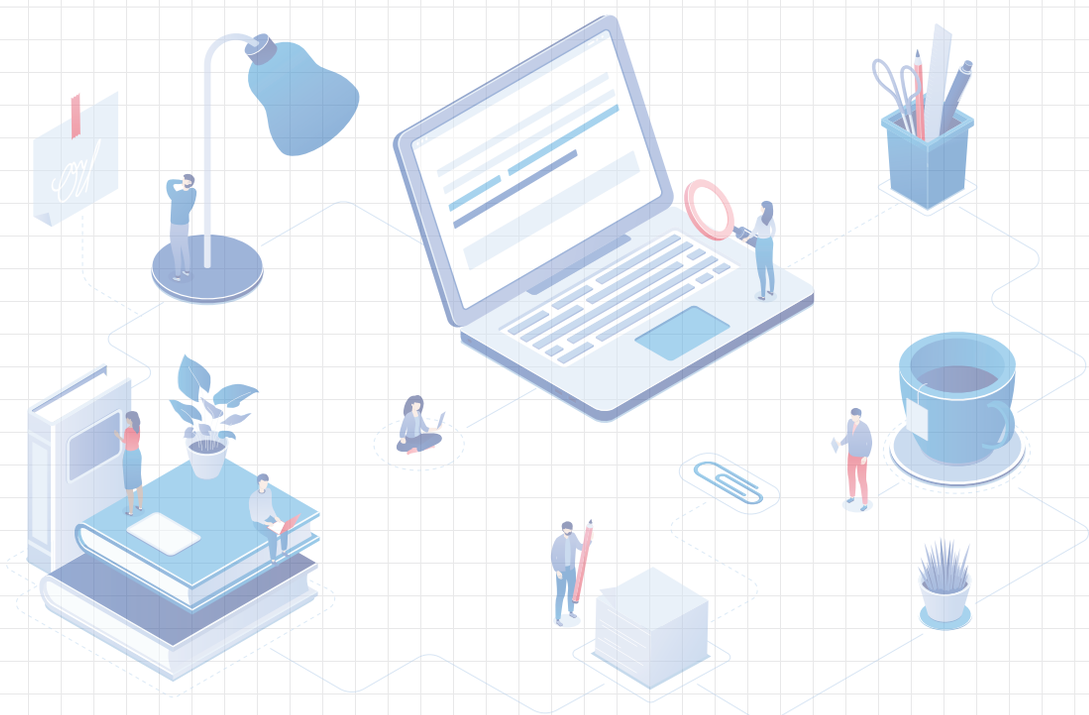
총계	106 (100%)

❾ 근무기간

'근무기간'은 '1년 이하'가 23건(21.7%), '2년 이하'가 19건(17.92%), '2년 초과'가 28건(26.42%)이고, 무응답은 36건(33.96%)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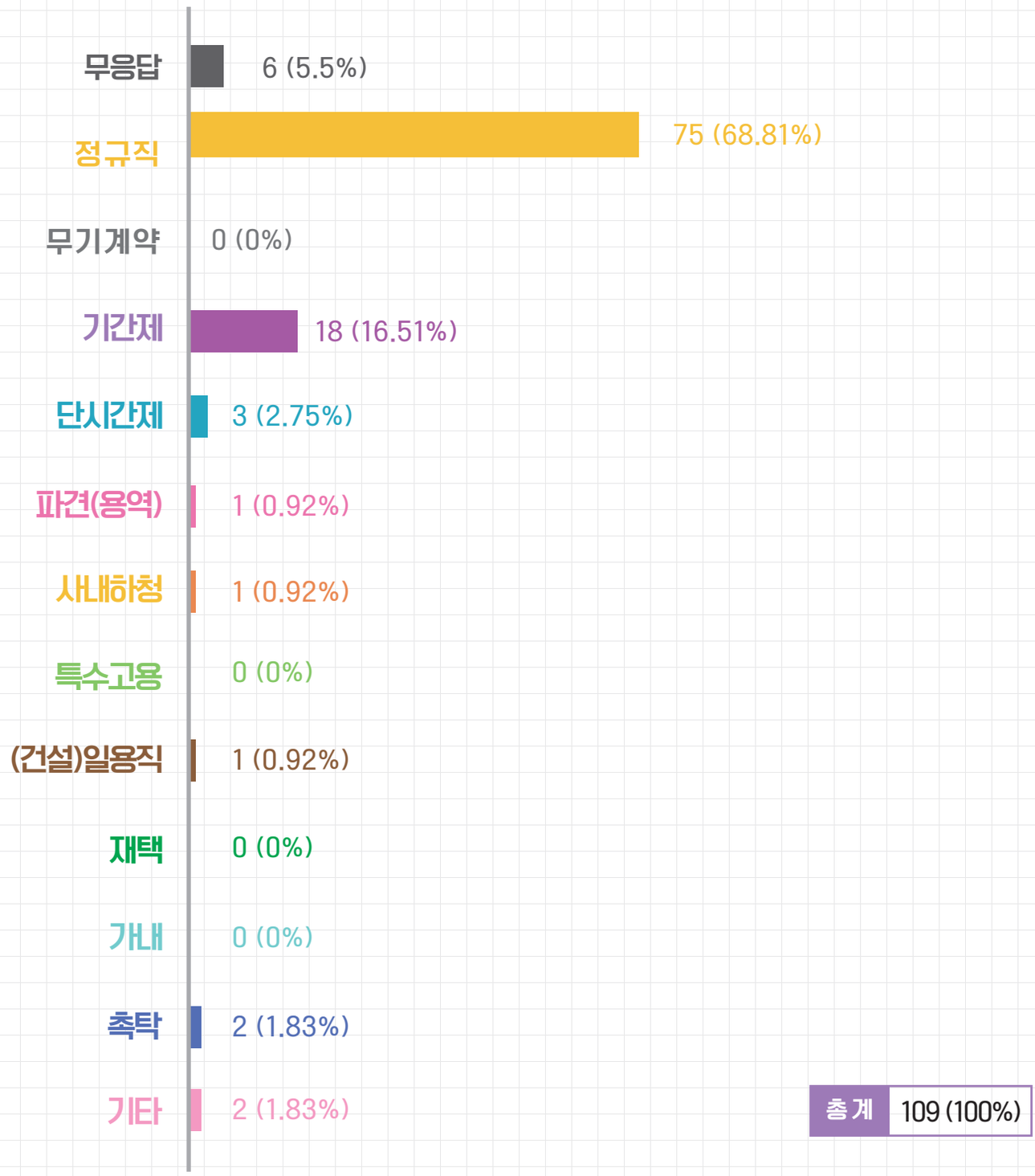


총 계	1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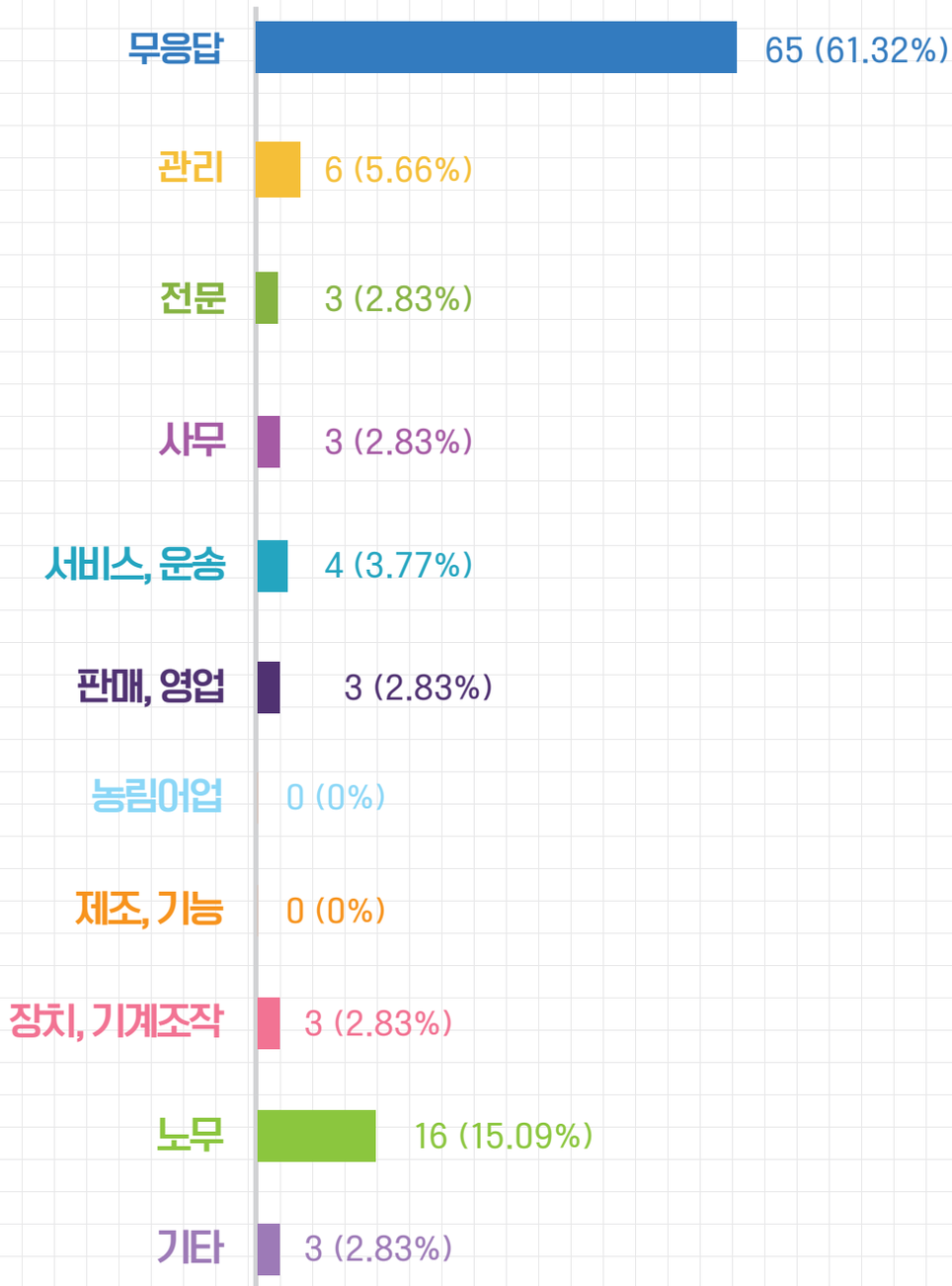
⑩ 고용형태

'고용형태'는 정규직 75건(68.81%), 기간제가 18건(16.51%), 단시간제가 3건(2.75%), 파견이 1건(0.92%), 사내하청이 1건(0.92%), 건설일용직이 1건(0.92%), 촉탁직이 2건(1.83%), 기타가 2건(1.83%)이며, 무응답은 6건(5.5%)입니다.



11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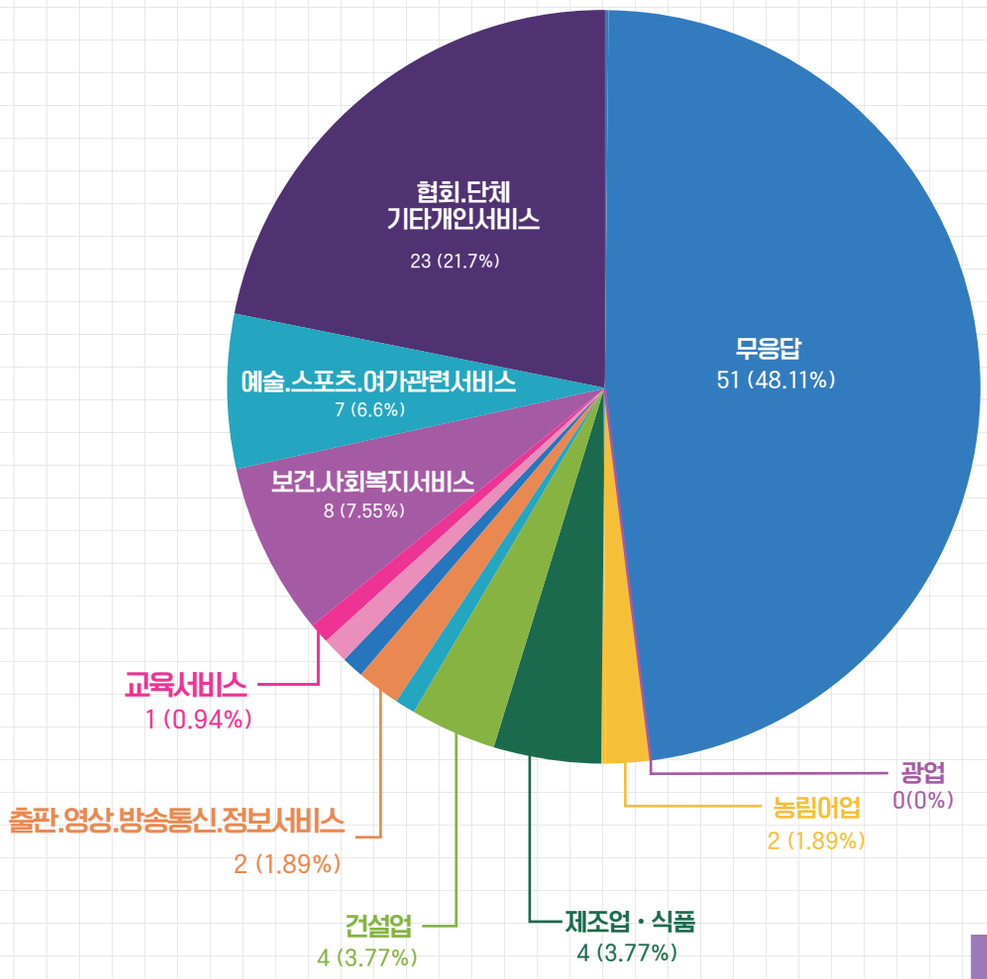
'직종'은 무응답이 56건(61.32%), 관리가 6건 (5.66%), 전문이 3건(2.83%), 사무가 3건(2.32%), 서비스 및 운송이 4건(3.77%), 판매 및 영업이 3건(2.83%), 장치 및 기계조작이 3건 (2.83%), 노무가 16건 (15.09%), 기타가 3건(2.83%)입니다.



총 계	106 (100%)

⑫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항목표 기준)

'회사의 업종'은 농림어업이 2건(1.89%), 식품제조업이 4건(3.77%), 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 재생이 1건(0.94%), 건설업이 4건(3.77%), 운수업이 1건(0.94%), 출판 및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 2건(1.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가 1건(0.94%),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서비스가 1건(0.94%), 교육서비스가 1건(0.9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8건(7.55%),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가 7건(6.6%),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가 23건(21.7%), 무응답이 51건(48.1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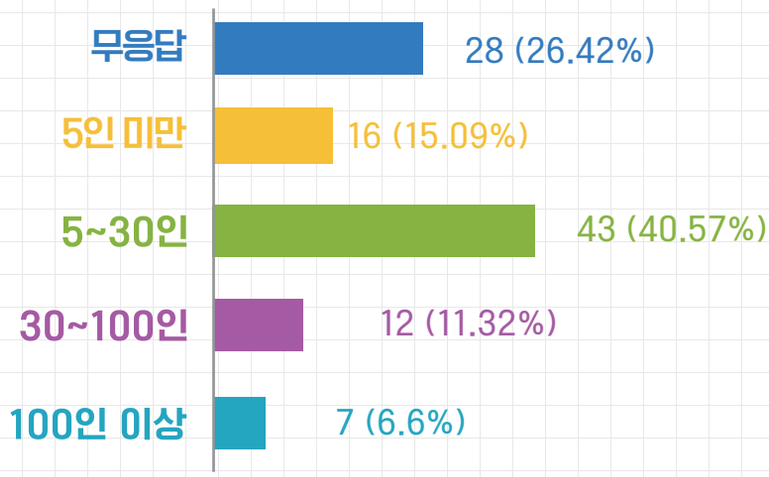


총 계	106 (100%)

제조업 · 화학섬유	0 (0%)	운수업	1 (0.94%)
제조업 · 금속.기계	0 (0%)	숙박 및 음식점업	0 (0%)
제조업 · 제약	0 (0%)	금융 및 보험	0 (0%)
제조업 · 자동차	0 (0%)	부동산 및 임대	0 (0%)
제조업 · 기타	0 (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 (0%)
전기.가스.수도사업	0 (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1 (0.9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1 (0.94%)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 (0.94%)
도매 및 소매업	0 (0%)		

⑬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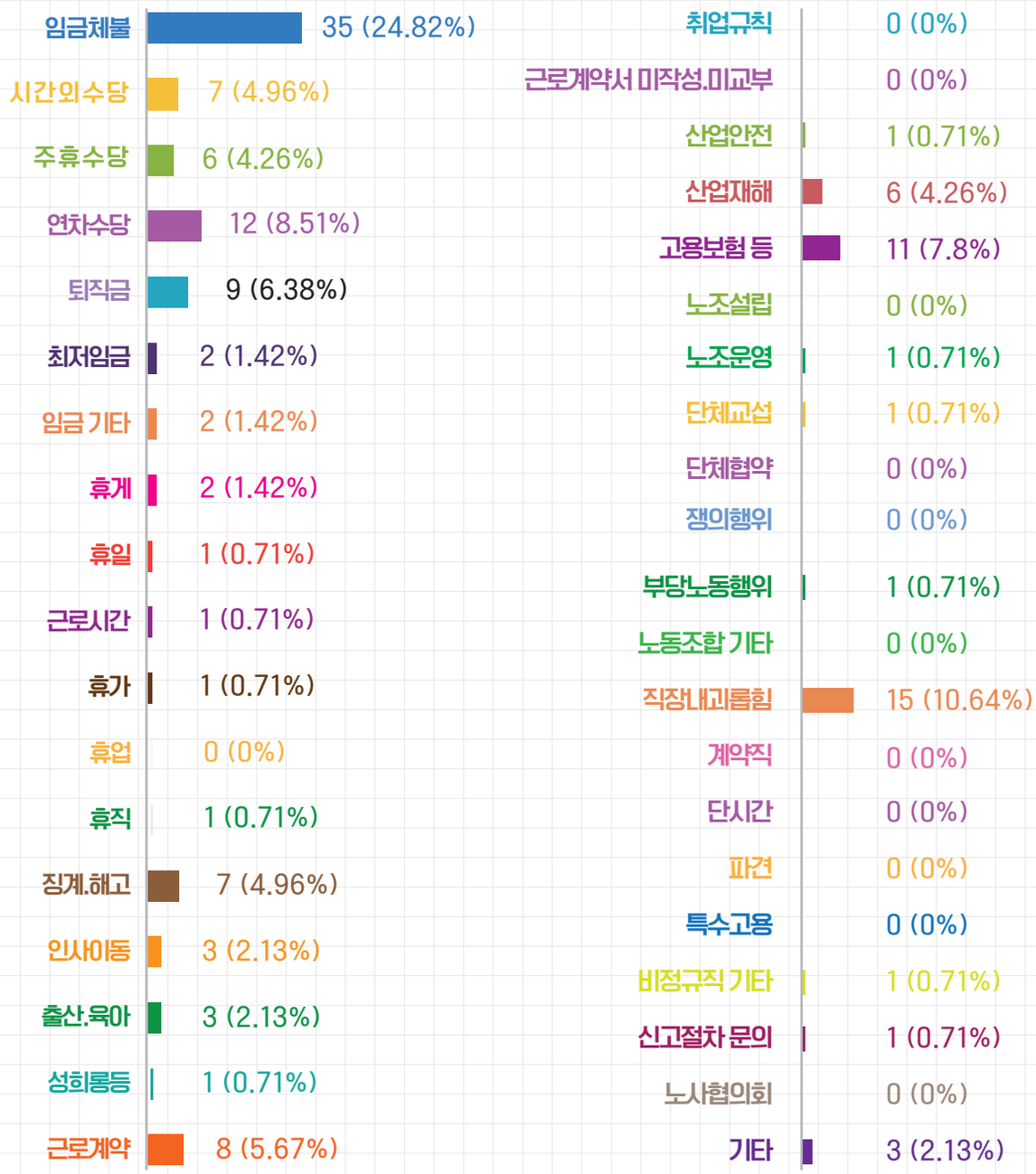
‘회사의 노동자 수’는 5인 미만이 16건(15.09%, 5인에서 30인 미만이 43건(40.57%), 30에서 100인 미만이 12건(11.32%), 100인 이상이 7건(6.6%), 무응답이 28건(26.42%)입니다.



총 계	106 (100%)

14 상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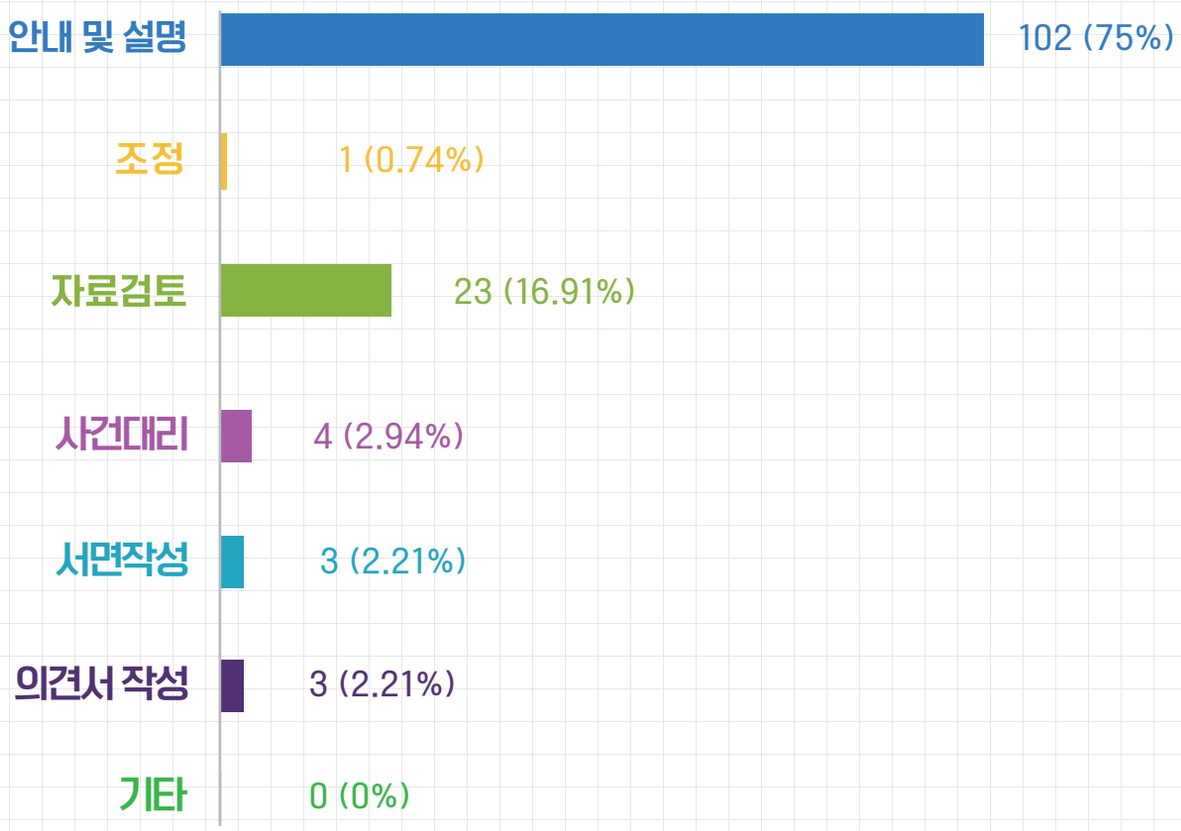
'상담분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35건(24.82%), 시간외수당이 7건(4.96%), 주휴수당이 6건(4.26%),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12건(8.51%), 퇴직금이 9건(6.38%), 최저임금이 2건(1.42%), 임금 기타가 2건(1.42%), 휴게가 2건(1.42%), 휴일이 1건(0.71%), 근로시간이 1건(0.71%), 휴가가 1건(0.71%), 휴직이 1건(0.71%), 징계 및 해고가 7건(4.96%), 인사이동이 3건(2.13%), 출산 및 육아가 3건(2.13%), 성희롱 등이 1건(0.71%), 근로계약이 8건(5.67%), 산업안전이 1건(0.71%), 산업재해가 6건(4.26%), 고용보험 등이 11건(7.8%), 노조운영이 1건(0.71%), 단체교섭이 1건(0.71%), 직장 내 괴롭힘이 15건(10.64%), 비정규직 기타가 1건(0.71%), 신고절차문의가 1건(0.71%), 기타가 3건(2.13%)으로 총 141건(100%)입니다.



총 계	141 (100%)

15 상담결과

'상담 처리 결과'는 안내 및 설명이 102건(75%), 노동위원회 조정이 1건(0.74%), 자료검토가 23건(16.91%), 사건대리가 4건(2.94%), 서면작성이 3건(2.21%), 의견서 작성이 3건(2.21%)으로 총 136건(100%)입니다.



16 진행 중인 사건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3건(25%),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2건(16.66%), 직장 내 괴롭힘 3건(25%),
4대 보험 미신고 관련 사건 2건(16.66%), 업무상 질병 2건(16.66%)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동사건을 위하여

노동상담팀

벌써 2022년 봄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 강추위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고양시의 시민 여러분 모두 봄과 같이 따뜻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상담, 사건들로 인해 고양시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지난날 진행했던 노동사건들이 떠오릅니다.

과거 노무법인에서 사용자 위주의 사건을 맡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자 위주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인 사건들 사이에서 그간 노무법인에서는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제는 이해하게 된 듯합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다양한 노동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사용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모르는, 그리고 노동자가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이 거의 무한하게 제공되는 면도 있기에,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노동자 사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고양시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의 유형은 대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증거 준비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진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입니다. 사건을 진행할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의 사정이 딱하고 안타까우나 사건을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만 소비될 뿐 이익이 없을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재직 중이라면 증거의 확보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고용관계가 단절된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단지 억울하다고 증거가 없이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본인이 당한 부당함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자료들을 정말 많이 준비한 후 우리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건은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그 결과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저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는 노동사건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수집할 수 있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큰 이점이 됩니다.

노동자 사건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합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불합리에 대하여 근거 없이 주장만을 한다면 사용자를 귀찮게 하는데 그칠 뿐 노동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이용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노사갈등의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리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동자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자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상담팀

우리 센터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경험한 상담 및 사건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는 쟁점이 명확하고 해결방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에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환경의 악화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폭언, 욕설, 과도한 업무지시 등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 사내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지시는 해당 지시가 과도하였는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로환경의 악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처럼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고, 노동자는 회사에 남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다 해도, 노동청의 업무는 상상 이상으로 많을뿐더러 사건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이의 주관이 다소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자아실현 또는 생계,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제공의 현장에서 최소한의 인격이 지켜지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를 명문화하였으나, 과연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센터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들이 꾸준히 접수되었고 이에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알맞은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회사에 남고 고된 노동환경에서 괴롭힘까지 당한 피해자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과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상처를 입은 채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 또한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때, 업무가 과도하게 많은 노동청이 아닌 전문적인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고양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센터 이야기 [활동보고 ①]

「배달종사자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실시

3월 30일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강당에서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4월 6일

고양종합운동장 중회의실에서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들은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에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법령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품목이고 플랫폼업체의 안전 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확산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약 450명을 대상(예산소진시까지)으로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륜차 배달사업자 또는 배달종사자가 센터에서 진행되는 10회[(3월30일~6월 8일(매주 수요일 14:00~16:00)]의 안전교육 중 원하는 날짜 1회를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장비를 구입하여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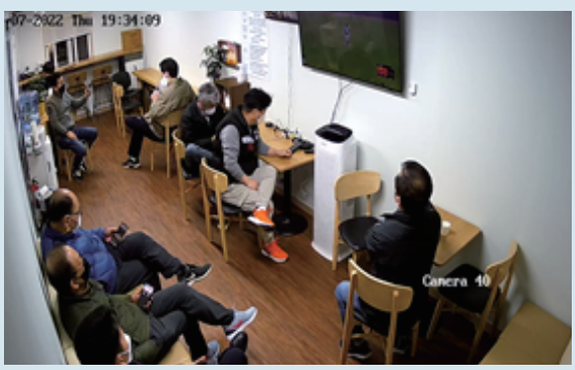
한편, 안전교육은 이륜차사고발생예방에 따른 안전수칙, 안전장구류 소개, 바이크 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손해보험 등 대처방안, 배달종사자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사업은 배달종사자들에게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손용선 센터장은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전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센터 이야기 [활동보고 ②]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휴다방'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시원한 쉼터가 되기를 힘들 때 맘 편히 쉬어가세요~



☑ 화정역 광장 (휴다방)

☑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 (휴다방)

"그동안 과로와 추위에 시달려도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었는데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쉼터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고양시는 비대면 사회에서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휴다방)를 화정역 광장, 일산동구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컨테이너식 부스형)에 하나씩 설치하였다. 작년 12월 14일 개소식을 열고,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내 노동자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어 야간 및 새벽에 일하는 대리기사 등의 경우는 이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은 고강도이지만,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비록 8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스마트폰 충전기, 와이파이, 테이블과 의자, 냉·온 정수기, 커피 및 차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루 갖췄다.
개소 이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화정역 광장 쉼터가 약 40명,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 쉼터는 약 110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 법규나 정책에 소외되는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 덕양구청후문 (도보2분)

11, 82, 85, 85-1, 95, 850, 771, 773, 1082, 1900, 3700, 3200, 9600, 9701, 016, 027, 028, 029A, 029B, 038, 072

지하철이용시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8분)

고양시노동권익센터
Goyang City Labor Rights Center

(104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화정동, 세은빌딩)
홈페이지. www.gynodong.org | 이메일. gynodong@daum.net
대표전화) 031-968-7656 | 상담전화) 031-968-7657